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마을재생

2016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함께하는 마을재생 시리즈
발간사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역 및 도시 정책의 전환적 측면에서 마을재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마을재생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기존 관주도의 'Top-down'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참여주체가 협력체계(파트너십)를 구축하여 협력적으로 비젼을 공유하고 전략을 실행하여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의 마을재생 현장에서 다양한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주체로서 발굴하며, 재생의 지속적 관리 파트너로 발전해야 하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에서 기획·발간한 「함께하는 마을재생 시리즈」는 마을재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훌륭한 파트너로서 잠재력을 지닌 참여주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어떠한 맥락 하에 지역의 참여주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양한 참여주체와 함께하는 마을재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본 발간물이 전달하고자 하는 강조점인 '함께하는 마을재생'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마을재생 추진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참여주체간 파트너십을 일깨우는 촉매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을재생을 준비하거나 관심을 지니고 있으신 참여 주체, 또는 마을재생 사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로 본 발간물이 널리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김 대 익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 해도
배울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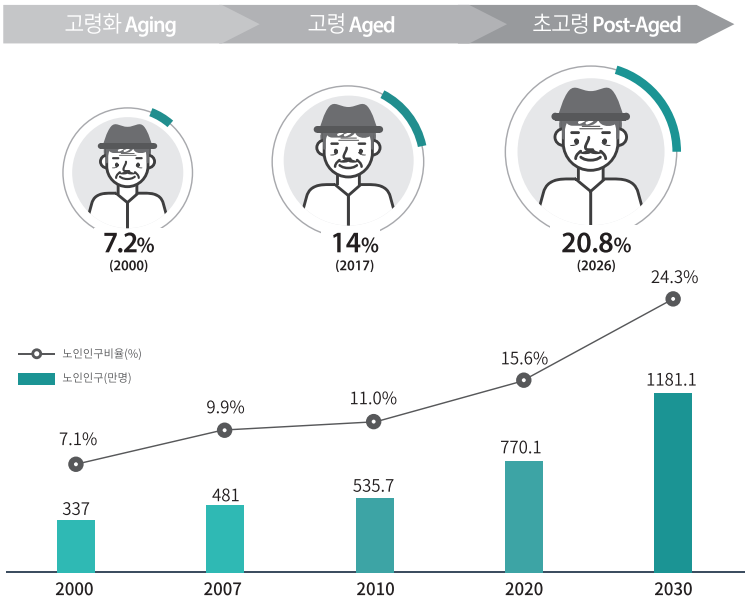
– 아이스큐로스 –

왜 지역 어르신에 주목해야하나요?

지역 어르신도 마을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지역에서 어르신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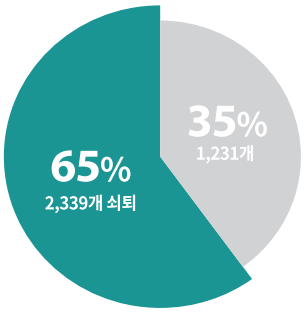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인구 340만명(7.2%)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7년 639만명(14%)으로 고령사회, 2026년 1,084만명(20.8%)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영국 100년 , 미국 89년에 비해 27년이라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국내 노령화지수는 94.1%로 전년보다 5.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고령화는 농어촌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지역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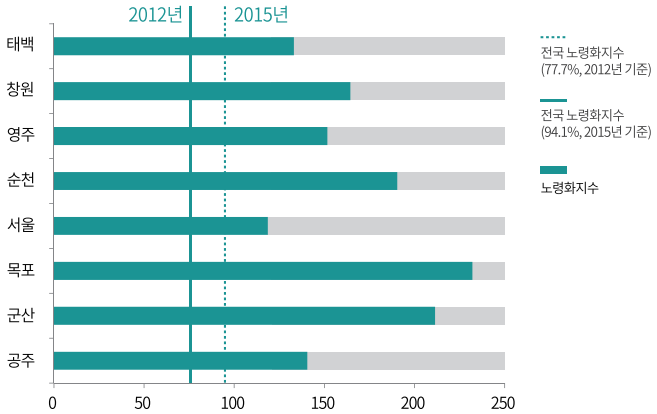
[통계청참고 자료]

지역의 어르신은 늘어가고, 도시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의 절반 이상이 인구 감소, 사업체 수의 감소, 생활환경의 악화 등 쇠퇴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쇠퇴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도시 내에서도 원도심 지역이 많으며 이 지역의 특징중 하나는 오랜시간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 어르신의 거주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2013.10월, 전국 3,470개
읍,면,동 기준



도시재생 선도지역 노령화지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참조]

노령화지수

유소년층 인구(0~14세)에 대한 노년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서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노령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장래에 생산 연령에 유입되는 인구에 비하여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역 어르신, 그들은 마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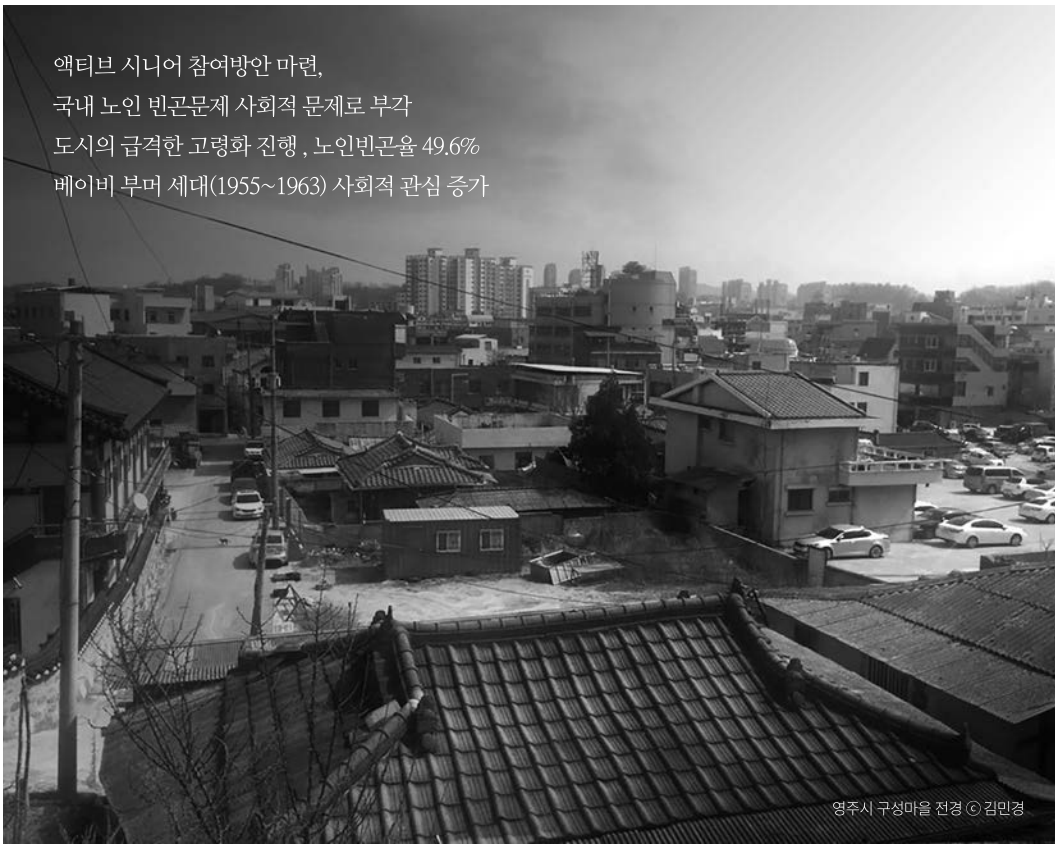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의 경우 이들이 축적해온 지식과 경험 등을 공유하고 활용하는데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특히 지역 내 거주기간이 긴 지역 어르신의 경우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공동체가 있거나 자발적인 공동체 형성이 상대적으로 원활하다. 이들의 경험과 지역의 스토리는 살아있는 지역의 자산이며,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어르신이야 말로 앞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Check point

지역 내 이런 어르신을 찾아보세요!

-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데에 어려움이 적은 어르신
- 본인의 관심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과 이를 지역 내에서 경험하고 싶으신 어르신
- 은퇴 후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어르신
- 건강한 삶과 소득 등 경제적 욕구가 있는 지역 어르신 등

지역에 계신 어르신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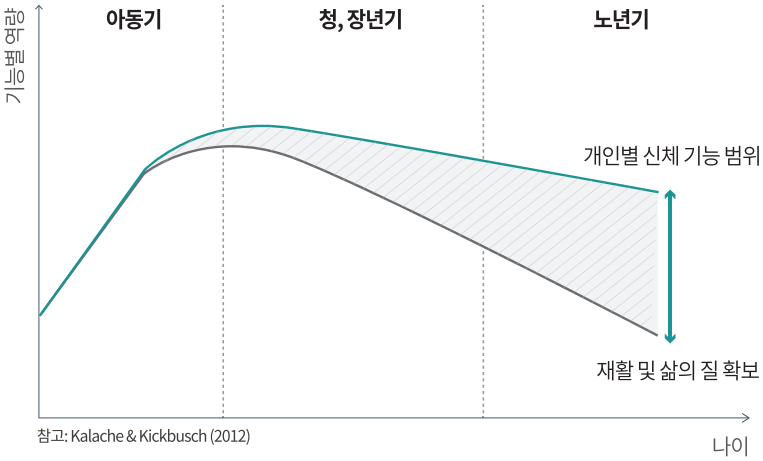
영주시 구성마을 전경 ⓒ 김민경

지역 어르신도 마을재생에 참여할 수 있나요?

마을재생에 관심있는 지역 어르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기는 크게 아동기, 청 · 장년기, 노년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이들의 지역 내 참여와 사회적 활동에 대한 관심, 이들을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스스로의 경험이나 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지역 내 에서 활용하고 싶어하는 어르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한 활동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 Kalache & Kickbusch (2012)

생애주기 전반의 주요 기능 수용력

[WHO Global Age-friendly Cities : A Guide]

지역 어르신의 활기찬 삶은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노인친화형 마을재생은 활기찬 노년의 개념과 그 결을 같이 하며 지역 내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참여를 유도해 지역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세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의 향상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특별시, 2011) 또한 지역 어르신의 경우 기존의 공동체에서 늙어가기를 원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다른 이웃들과 함께 지역공동체를 안정시키는 주요한 주체가 되고 있다. (김세규, 2013)

활기찬 노년을 위한 주요 결정요인
[WHO Global Age-friendly Cities : A Guide 참고]

활기찬 노년

나이가 들더라도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과 사회참여, 안전의 기회를 보장하는 과정으로써, 각 개인과 집단에 공히 적용되어야 함.

[WHO. Ageing and Life-Course Programme. (2002)]

마을에서 지역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물리적 정비 위주의 도시정책이 한계에 다다르자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도시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차원의 재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재생 관련 국가지원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지역의 특징 중 하나는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어르신을 위한 안전안심 골목길 조성, 취약계층을 고려한 시설조성 사업 등 물리적 정비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강화와 지역 어르신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 기획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마을기업 추진 등 지역 어르신을 주체로 한 다양한 세부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

ⓒ 반영선

영주시 내 독거노인 비율이 73.9%를 차지하는 구성마을의 할머니들이 할머니묵공장에서 생산한 묵 시식회를 개최하는 등 축제의 주체로서 활동하였다. 지역 어르신이 주체가 되어 지역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Check point

지역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범부처에서 추진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노인일자리지원사업**(보건복지부) : '04년 2만 5천개로 시작하여 '16년 38만 7천개로 10배 이상 증가
- **안전한 학교만들기**(교육부) : CCTV 상시모니터링, 학교급식, 교통지도 순찰
- **노인시험감독관**(행안부, 복지부, 지자체 등) : 전직교사 등으로 인력풀 구성하여 공무원 등 각종 자격시험에 노인 감독관 파견
- **바다사랑지킴이**(국토부) : 해안가 방치 쓰레기 수거 및 해양환경 정비
- **공공산림가꾸기산업**(산림청) : 숲가꾸기, 산물정리 등 산림환경 정비
-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복지부) : 노인자원봉사활성화, 노인 사회참여 유도

[보건복지부(2013) :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보도자료]

지역 어르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역 어르신이 행복한 마을,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역 어르신의 욕구(Needs)를 파악한 마을재생이 필요합니다.

Maslow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차원인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최고차원인 자기실현까지 5단계의 욕구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지역 어르신의 경우도 기본 생계 및 복지에 대한 욕구인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건강 및 치료 등을 위한 의료 서비스, 케어서비스 등의 욕구인 안전에 대한 욕구,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의 욕구, 인간관계 강화 등을 위한 존경의 욕구, 노년기의 목적있는 삶의 추구와 의미있는 시간의 소비 등을 위한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욕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기존의 어르신의 경우 기본생계와 생활에 중요한 생리적 욕구 및 안전에 대한 욕구가 지배적이었다면 점차 소속, 존경의 욕구 그리고 더 나아가 자아실현의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지역에 어르신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지역 어르신이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시작점이다.

현 시니어의 욕구 변화

**물리적환경,
사회적 환경,
건강 및 공공서비스를
고려한 마을재생이
필요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 내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삶과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주요한 필요요소 중 하나이다. 이렇게 조성된 물리적 환경에서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등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이 수반되어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점차 지역 어르신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과 가까운 곳에 물리적 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 복지 및 건강을 위한 서비스가 확산되어 단순한 생계및 의료적 케어보다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한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리적 환경

고령친화시설

안전 및 교통 편의 환경

주거 편의 환경

사회적 환경

지역사회 활동 참여

사회적 존중 및 포용

일자리 지원

공공 서비스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지역복지 및 건강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지역 어르신은 어떻게 마을재생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재생에 참여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이 마을재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실제 직접적인 그들의 니즈와 생각을 듣는 방법에서 부터 정보전달을 통한 공감대 형성, 재생 관련 사업 추진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세부사업 등을 직접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듣기부터 사업의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방법까지 마을재생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며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지역 어르신 각자의 관심분야와 능력을 토대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어르신이 마을재생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정보전달

지역의 소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어르신의 삶은 지역의 역사와 다양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 이러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축적되는 지역의 크고작은 일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의 소식을 공유하는 과정은 마을재생에 참여하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정보와 소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지역자산을 발굴할 수도 있다.

[출처 : 대구광역시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http://www.citynamgu.net]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은 지역 어르신의 모임이 가장 활발한 장소로서 마을 내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며 함께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주요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의견내기

지역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을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은 필요하다. 마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역 어르신이야 말로 그 마을에 대해서는 전문가보다 더 나은 개선안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마을 내에서 보내는 지역 어르신의 니즈와 의견은 지역 변화와 생활에 필요한 부분일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들은 프로그램이나 재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있어 주요한 모티브이자 컨텐츠가 될 수 있다.

[출처 :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www.citynamgu.net]

주민협의체 참여

주민 조직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지역문제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으며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나가고 싶은 어르신이라면, 지역 내 주민협의체의 일원이 되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조직에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있는 더 나은 대안을 지역 어르신이 직접 제시할 수 있다.

[출처 : 목포도시재생지원센터, http://www.mokpourc.or.kr]

활동 프로그램 참여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삶을 살아오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관심분야가 있으며 혹은 노년의 삶을 살면서 새로운 관심이 생기는 분야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관심분야를 토대로 마을 내의 동호회 또는 지역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활동 프로그램의 참여는 지역을 활기차게 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식 증진과 다양한 계층간의 유대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 : 더불어락 광산구노인복지관 www.gsnoin.or.kr]

광주 광산구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에서 개최한 예술제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실버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들의 관심사를 토대로 한 다양한 활동과 참여는 지역의 활성화와 중요한 연계가 있다.

실행주체 활동

지역 내 추진하는 사업의 실행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지역 어르신을 돌봄을 받아야하는 수동적 주체에서 직접 마을을 돌보고 공동체를 위해 직접 실천하는 주체로서 활동할 수있다 . 지역의 문제에 대해 물음을 던지며 토론과 실천과정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지역 내 오래 정주하신 어르신들은 지역에 대한 애착이 깊으며 이는 지역의 문제 해결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들은 전문가보다 오히려 지역에 대해 더 나은 개선안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출처 : 부산동구시니어클럽, http://www.dgsenior.or.kr]

평균연령 70대, 18명의 할머니들이 오랜 주부생활을 바탕으로 각자의 요리 비법을 뽐내는 화통한 할매도시락.

지역 어르신도 할 수 있나요?

마을재생,
지역 어르신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요 구	목 표	참여방안
물리적 환경	고령친화시설	지역어르신들을 위한 공간마련으로 활동 증진	정보전달
	안전 및 교통 편의 환경	사고로 부터 안전하고 교통이 편리한 환경 조성	의견내기
	주거 편의 환경	지역어르신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여건 향상	
사회적 환경	지역사회 활동 참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의 활성화 유도	주민협의체 참여
	사회적 존중 및 포용	다양한 계층간의 네트워크로 지역어르신의 존중	활동 프로그램 참여
	일자리 지원	지역어르신의 일자리 지원으로 경제적 가치 증진	
공공 서비스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교육 및 정보공유를 통한 삶의 가치 재발견	실행주체 활동
	지역복지 및 건강	건강 및 복지 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고령친화시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마련으로 다양한 활동 증진

마을 내 지역 어르신의 니즈를 고려한 활동 공간을 조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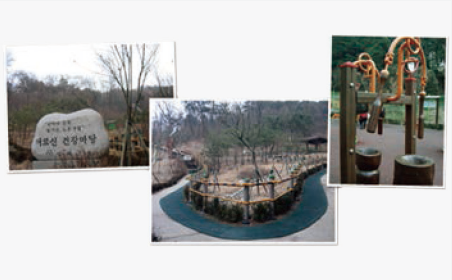
기존의 지역 어르신을 위한 공간은 대부분 돌봄의 대상으로서 그들을 케어하는 경로당, 복지관, 요양병원 등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점차 지역 어르신들의 인식과 욕구가 변화하면서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이들의 니즈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지역 어르신을 위한 공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 내 일을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공간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친화시설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 즉 주거공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소규모 공동체 형성과 이들의 관심 및 역량에 따른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고령친화시설로는 광주 광산구의 더불어락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으며, 이곳은 취미 및 활동프로그램부터 지역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등 지역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성북구의 고령친화공원은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운동기구를 마련하여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하세요

서울 성북구 '어르신 건강마당'

120㎡ 규모의 어르신 건강마당을 상월곡동 청량근린공원 내에 조성하였다. 건강도시 성북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중점 사업 대상인 노인에게 신체활동량 증가 및 근력향상 등의 건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었는데, 운동재활기구(바벨·허리돌리기·뜀틀 등), 걷기용 트랙, 근력강화 및 균형감각 운동기구, 지압기능이 있는 안전손잡이, 무릎보호를 위한 고무칩 보도, 안내 게시판 등의 시설을 갖추었으며 노인의 신체 활동을 고려한 시설 배치와 선정을 시도하였다.



[출처 : 성북어르신 홈페이지 http://www.seongbuk.go.kr/pms/contents/contents.do?contseqn=715]

안전 및 교통편의환경

사고로 부터 안전하고 교통이 편리한 환경 조성

마을의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걷기 좋은 마을로 만듭니다.

지역 어르신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근린환경의 질이 쾌적하지 못하여 이들의 보행이나 신체 활동률이 낮은 특성이 있다. 지역 어르신이 이용하는 골목길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골목길을 정비하거나, 포장을 변경하고, 안내시설물 설치 등의 물리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보행등, CCTV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마을 여건에 따른 안전 점검과 각종 재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장애나 편견없이 다 함께 어울려 살기 편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을 통한 무장애(Barrier-free)환경 조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신체여건으로 인해 오랜시간 이동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을 위해 외부공간 곳곳에 벤치를 설치하는 뉴욕시의 프로그램은 작지만 주요하게 참고해 볼만한 사례이다.

참고하세요

대구시 남구 ‘ 우리동네 안전한 귀가길 만들기 사업’

대구시의 '우리동네 안전한 귀가길 만들기 사업'은 '주민 제안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었으며 남구의 우리동네 안전한 귀가길 만들기추진협의체가 제안한 주민공모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남측 관문시장 주변의 나트륨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52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관문시장 및 주변 주택가 일대의 야간 보행 환경이 개선됐다. 이는 지역 어르신이 직접 지역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간 사례로 볼 수 있다.

[출처 : 대구광역시 보도자료(2016.1.8)]

“관문시장 주변의 골목길이 많이 어두워 치안 취약지역이었는데, 이제는 노약자나 여성들도 야간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골목길이 되어 제안자로서 뿌듯합니다(대명11동 통우회 회장) ”

주거편의환경

지역 어르신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여건 향상

생계를 위한 거주공간이 아닌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역 어르신의 경우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에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원한다. (Howell,Land and Friedman;1982)이렇듯 한명의 어르신이 본인이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주거의 환경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 이러한 사회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Aging in Place'는 지역 어르신이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안정된 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어르신의 삶의 패턴에 적합한 주거계획 요소가 필요하다. 또한 거주자의 노령화에 따라 주거 내·외부를 개선하여 이들이 살아온 지역에서 사회적 접촉과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져야 한다. 이는 장애요소를 보완하는 베리어프리 개념을 도입한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의료서비스, 사회적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까지 포함하는 주거환경의 조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참고하세요

시니어 코하우징 ' 핀란드 로푸키리'

시니어코하우징은 자립능력이 있는 어르신을 위한 공동체 조성 방안 중 하나이다. 지역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고 운영한다는 점에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핀란드의 '로푸키리'는 대다수가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이들이 조직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디자인부터 공동의 생활규칙까지 조성하였다. 단순한 생계를 위한 거주공간을 넘어서 생활하기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어 주거공간의 변화가 이들의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로 참고 가능하다.

[출처 : 로푸키리 홈페이지 http://loppukiriseniorit.blogspot.kr/]

"코하우징은 덴마크 건축가인 앤 굿맨파이어가 창안한 것으로 주민이 직접 디자인과 설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구성원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동시설 및 공간을 함께 공유한다는 점이 일반 주택과 다르다."

지역사회 활동 참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의 활성화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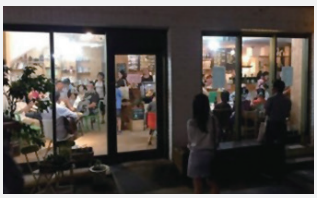
지역 어르신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 내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지역 어르신의 경우 돈보다 가치있는 삶의 재발견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토대로 지역에 환원되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원하기도 한다. 지역 어르신이 사회적 주체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니어 인문학 읽기'와 같은 지역 어르신들의 취미생활을 토대로한 동호회 성격의 모임에서부터 강릉 도배마을의 '우추리응원단'과 같이 지역 내 가치를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으며 지역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는 활동들을 토대로 지역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참고하세요

서울 서대문구 '시니어 인문학 읽기'

서울시 서대문구는 협동조합 활동 등을 통한 텃밭가꾸기, 저학년자녀와 노인세대를 연결한 등하원시키기 등 생활 속 품앗이 활동프로그램을 통해 세대간의 교류를 유도하고 있다. 이중 시니어 인문학 읽기는 지속적인 지역 어르신끼리의 관계맺음을 형성하고 자아실현을 동시에 만족하는 활동으로 지역 어르신의 관심사에서 출발한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지역 어르신 세대 만의 것이아닌 지역의 미래새대와 연결되어 있는 가치있는 것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출처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웹진 30호]

강릉도배마을 '우추리응원단'

강원도 강릉 도배마을의 지역 어르신으로 구성된 우추리 응원단은 강원 FC를 응원하는 서포터즈이다. 이들의 특징은 강원 FC의 경기를 응원하는 응원단으로 원정응원을 함께 다니며 응원 이후 관광까지 하는 여가활동형 참여사례로 볼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의 경우 여가활동 중 관광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의 애착심 상승과 여가활동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사례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61867]

사회적 존중 및 포용

다양한 계층간의 네트워크로 지역 어르신의 존중

이들의 스토리를 다양한 연령층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존중은 다른 모든 계층과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첫 단추이다. 예를들어 지역 내 상점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고객을 대하는 태도를 교육하고, 매장환경을 어르신에게 편리한 형태로 리모델링 하는 것도 다른 계층과의 네트워크가 수반되어진다. 지역 어르신을 지역사회의 주체와 일원으로 존중하고 포용하기 위해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아동 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청년 공유프로그램도 이러한 사회 현상과 그 결을 함께하며 천안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서는 지역 어르신과 청소년간의 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의 스토리 등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하세요

지역 어르신의 이야기가 담긴 전시회 개최

마을에서는 지역의 어르신을 주인공으로 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완주군에서는 2014년도 할머니들이 가장 잘하는 음식, 옛날 사진 등을 가지고 완주 문화의 집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전시회 개최하였다. 2016년도 경남 의령군에서는 지역 어르신 6명을 주인공으로 한 '인생 난장'전시회를 열어 지역의 스토리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기회를 마련하였다. 지역의 스토리와 역사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어르신의 이야기가 담긴 전시회는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출처 : 경상남도 의령군 공식 블로그 '의령이야기', http://blog.naver.com/uiryeonginfo]

일자리 지원

지역 어르신의 일자리 지원으로 경제적 가치 증진

지역 어르신의 지역 내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선순환을 유도합니다.

지역 어르신의 경우 경제적 활동을 중단하신 분들이 대다수이지만 퇴직한 이후에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소득 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국내의 지역 어르신을 위해 지원되는 일자리 정책은 이들의 여건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월 20만원 내외의 사회적 일자리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국외사례를 보면 어르신의 일자리 지원을 단순한 어르신 소득활동으로서 관심을 가지기보다 어르신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에 좀 더 큰 비중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일자리 제공을 단순한 경제활동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면서 편안하게 경제적 활동을 하며 이러한 일자리가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가치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지원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하세요

부산 동구 안창마을 '할모닝쨈'

할모닝쨈 공동체는 40년 이상 이 마을에 살아온 할머니 10명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마을 내 소외계층에게 잼을 만들어 무료로 만들어주고 있으며 잼의 재료인 딸기는 경남 양산시 원동 딸기마을에서 후원해주었다. 지역 어르신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들에게 지역 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지역 내 선순환을 유도하고 긍정적 에너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례이다.

[출처 : 국제신문 안창마을 할머니가 만든 사랑의 '할모닝쨈'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2100&key=20150120.22028200944]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산 동구 '이바구 자전거'

부산 동구의 산복도로의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지역 어르신 20분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이바구자전거라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부산 내에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높은 동구에서 동구 시니어클럽과 연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한사례로 지역 어르신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코스 기획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광이라는 문화컨텐츠와 일자리를 접목시켜 지역 어르신이 직접 지역의 스토리를 전달하며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어르신의 참여를 유도하는 긍정적 사례로 보인다.

[출처 : 부산광역시 공식 블로그 쿨부산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2100&key=20150120.22028200944]

백석올미영농협동조합 '매실한과'

하루에 버스가 고작 세 번 오가는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의 백석마을의 주민들에겐 10만 그루의 매실나무 경작 외에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다. 경작된 매실은 제 값을 받지 못해 마을 어르신들에게 도움 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 평균 연령 76살 할머니들이 모여 2011년 매실한과를 생산하는 공동체를 만들었고, 이 공동체는 백석 올미(兀(으뜸 올)味(맛 미)) 영농조합으로 발전했다. 정부, 시의 지원과 참여한 마을 주민들이 돈을 모아 공장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 된 백석마을의 특별한 소득원이 되었다. 백석올미영농협동조합에서는 당진 쌀과 백석마을 매실로 매실한과를 만들고, 이 외에도 매실 장아찌, 매실 고추장, 매실청, 매실 액기스 등 다양한 매실 가공품을 생산 및 판매한다. 일보다 행복한 노년의 삶을 우선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노인 근무 환경을 존중하고 판매 수당을 지급하며, 어르신들이 여러 직책을 나누어맡아 체계적으로 조직이 관리되고 있다.조합원들은 마을 양로원에 겨울 동안 무료 급식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공동체 활동으로 '같이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처 :올미원(2015)
http://www.allmeone.com/board/gallery/read.html]

[출처 : 충남넷 미디어
http://www.chungnam.net]

Check point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고령자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후 및 불량주택 밀집지 거주 노인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노인복지향상에 기여

- 마을재생과 연계하여 사회취약계층 지원시설과 취약계층 프로그램 지원
-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마을 활동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노인참여 마을 관리 시스템 정착의 기반으로 활용
- 시장형 사업의 경우 마을기업으로의 사업 확장 기반 마련이 가능하며, 이는 곧 마을 내 경제적 선순환 구조로 발전 가능

미국 '직업교육-일자리 연계 고령자 지역사회 고용 프로그램

고령자 지역사회 고용 프로그램(SCSEP)은 직업교육을 토대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 연간 사회참여 기회 제공율 40% 수준

일본 'Ageless Society'

고령자가 지역 내에서 일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 지원

- 노인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의 Hello Work고용 상담 창구에서 관련 상담과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 훈련,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보조금 등을 지급
-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보조금 지급, 고령자 등의 고용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 제공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교육 및 정보공유를 통한 삶의 가치 재발견

지역 어르신을 위한 교육과 공동체 조직은지역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습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이 정보 및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공동체 조직을 통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정보의 접근성이 향상되면 지역 어르신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아나가는데 좀 더 용이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각종 시설, 주거, 여가활동, 일자리, 복지 영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순환이 원활해 질 수 있으며 이는 어르신 주체의 지역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어르신이 많은 지역의 경우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방안을 모색하고 의사소통 방법을 위한 지침 또는 교육을 통해 이들이 삶의 가치를 재발견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참고하세요

강원 강릉 '작은정원' 마을가꾸기

여성모임인 '자연친구'에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지원받아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화단과 텃밭가꾸기에 대한 교육모임을 시행하였다. 이를 배우면서 할머니들은 새로운 취미와 삶의 가치를 찾기 시작하였으며 발전하여 정식 단체로 등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단기적 교육을 통해 지역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활동한 긍정적 사례로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지역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실천 활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출처 : 자연친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184726204904923/photos/?tab=album&album_id=575317082512498, http://blog.naver.com/gongkk/220074807317]

지역복지 및 건강

건강 및 복지 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건강 및 의료서비스 등 복지 프로그램은 지역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노인 건강은 이들의 자립적인 생활과 활기찬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기반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부터 장애나 중증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역할만 하여 지역의 커뮤니티와 교류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역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지역사회에서 치료 및 복지 서비스를 누리면서 지역 어르신들 간의 교류할 수 있는 의료복지시설 등의 운영이 필요하며 재생관련 계획 수립 시 통합형 의료지원서비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고하세요

광주 광산구 '더불어樂' 노인복지관

'마을에서 어르신 한 분을 잃는 것은 큰 도서관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 광주 광산구 노인복지관의 홈페이지 첫화면을 장식하는 문구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은 2005년자주와 공생의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람중심의 공동체 복지 노인복지관만들기라는 비전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지원, 평생교육, 건강생활증진을 위한 건강상담 및 교육, 치매예방센터 등이 위치해있으며, 노인돌보미 서비스, 급식지원까지 노인의 건강 및 복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광주 전남 1호 협동조합인 ' 더불어락 협동조합' 설립으로 2012년 4월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모금(3700만원)과 구 지원금(1200만원) 일부로 조성한 최초의 북카페가 있다. 북카페 조성을 위해 건축 등 관련업종의 노인들의 재능기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어르신들이 지역복지관의 주체로 자리하여 공동체를 복원하고 변화를 시도한 자립형 노인복지 모델이라는 희망을 담아내고 있다.

[ⓒ 최성욱, http://www.gsnoin.or.kr/]

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마을재생

Neighbourhood Regeneration with Seniors

지역 어르신이 행복한 우리마을 이야기

물리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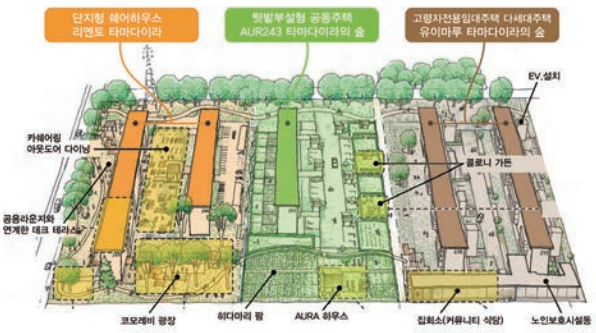
지역 어르신을 위한 주택 '타마무스비 테라스(たまむすびテラス) 프로젝트'

변화하고 있는 지역 어르신에 대한 케어와 주거공간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지역 어르신의 주거공간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고령자의 경우 본인이 살아온 지역에서 경제적 여건과 건강을을 돌보며 생활하기 원하고 있다. (이세규, 2013) 이들의 경우 기존의 공동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인식변화와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기존의 형태가 의료 및 집단케어 중심의 시설조성에 치우쳐 있었다면 점차 이러한 의료중심의 집단케어와 사회적 커뮤니티 중심의 개별케어를 통합한 모델이 점차 확산되고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사례 중 하나인 타마무스비는 풍부한 녹지와 외부공간을 살리면서 각자의 기획에 의한 새로운 주택과 시설 등으로 재생하고 단지의 원풍경을 남기면서 지역 어르신들만을 위한 주거공간이 아닌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생활할 수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타마무스비 테라스 단지 조성

일본주택공단에 의해서 1958년에 입거를 시작한 (구)타마다이라(多摩平)단지는 재생계획에서 민간사업자의 창의적 방안을 활용해 3개의 민간사업자가 리모델링 하여 비어있는 주동을 재생·활용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3개의 민간사업자가 UR과 15년에서 20년간 정기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서브 리스사업(sublease)을 전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원래, 타마다이라단지는 일본주택공단 초기에 최대 규모로 10동이 넘는 건물을 지었으나 5동만을 남겨둔 채 나머지는 철거하였다. 2010년에 사업자 모집에 의해 선정된 3개의 민간사업자는 토덴부동산(東電不動産), 타나베물산(たなべ物産), 커뮤니티넷.(コミュニティネット)으로 각각 「리엔토 타마다이라(りえんと多摩平): 단지형 쉐어하우스」, 「AURA243 타마다이라의 숲(多摩平の森): 콜로니헤브 (덴만크어: 작은 창고가 있는 정원)」, 「유이마루 타마다이라의 숲(ゆいまーる多摩平の森):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하우스」의 각각의 제안을 실시하였고 리모델링 공사는 2011년 3월에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준공이 이루어져 2011년 10월 22일에 전체 단지를 오픈하였다.



서로 도우며(유이마루(ゆいまーる) 살아가는 고령자를 위한 커뮤니티 주택

타마무스비 단지는 크게 3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고령자를위한 주택인 유이마루 타마다이라의 숲(ゆいまーる多摩平の森):고령자를 위한 주택·다세대 주택(2동)이 오른쪽에 위치하여있다. 본유이마루 타마다이라의숲은 '자신만의 삶을 살 수있는 커뮤니티만들기 ' 라는 테마로 조성되었다. 이 구역의 사업자인 (주) 커뮤니티 넷은 고령자 주택계획을 주로 수행하는 회사로 UR(일본도시재생지원기구) 로부터20년 정기임차계약을 체결하고 2개동의 주동서비스와함께 고령자를 위한 커뮤니티 주택을 리모델링 하였다. 이 주택의 주요 구성 요소는 ①주호의 리모델링, ②엘레베이터·계단의 증축, ③소규모 다기능주택 및 고령자 보호시설의 증축, ④집회소의 증축, ⑤커뮤니티 형성 5가지였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으로는 건물의 기존계단을 철거하고 엘리베이터와 공용복도를 증축하여 수직동선의 베리어 프리를 실현하였다. 기존 건물은 1층도 지면으로부터 약 1m 높이에 있기 때문에 슬로프로 접근하면서도 도로면에서 부지전체로 레벨을 부드럽게 조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고령자의 도보를 유도하고 하였다. 단지 전체의 배치특징은 동서축으로 세워져 있는 주동을 남북축으로 이어 소규모 다기능 노인보호시설동과 집회실동을 증축하고 평행배치 단지의 단조로움에 직교한 저층 건물 통해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소규모 다기능 노인보호시설동은 증축부분 이외에 기존건물 1층 1개의 주호를 용도변경하여 시설의 일부 (물사용공간)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거주하는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긴급통상설비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리엔토 타마다이라	AURA243 타마다이라의 숲	유이마루 타마다이라
사 업 자	토덴부동산(주)	타니베물산(주)	(주) 커뮤니티 넷
사업방식	15년간 임대	15년간 임대	20년간 임대
주동 호수	2동 142호(쉐어하우스형)	1동 24호, 텃밭임대 45구획	2동 63호
주요 거주대상	젊은사회인, 대학생	슬로우 라이프 커플, 중장년, 신혼부부	고령자

[http:// www.ur-net.go.jp/rebuild/m2/gaiyou 참고 재정리]

ⓒ 송준환

ⓒ 송준환

주거의 공간을 넘어서 인생을 교류의 장으로

집회실동은 주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주동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2곳의 입구를 별개로 배치하고 있다. 이는 사소한 요소이지만 마을 내 공동체를 확립하고 교류를 원활하게 해주고 있다. 집회실은 식당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오픈 초기에는 점심과 저녁식사만을 제공하였으나, 이용자가 많아 최근에는 아침식사도 이용가능하다. 특히, 기숙사로 활용되고 있는 주동 등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식사를 하러 많이 찾아와 젊은이와 고령자가 함께 교류하는 장으로서도 활용되고 있다. 집회실동에는 지역사람들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서관에 있어서는 입주한 지역 어르신들로 구성된 「도서부회」가 서재공간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서적들은 새롭게 구매한 서적이 아니라, 입주시에 처분이 곤란하여 기부한 책으로 자신의 책을 공유하고, 자신의 책을 읽고 싶을 때 도서관에 찾아와 책을 읽으며 지역주민들과의 커뮤니티 또한 함양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변 식물과 화단을 관리하는 「그린 클럽」과 「고령자의 간호를 생각하는 클럽」 등이 다양한 입주자 참가형 부회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외에도 `NPO`단체들과 연계하여 고령자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실시하고 있다.

Check point

이런 점은 참고하세요

일본에서는 UR에 의해 만들어진 단지를 신성장전략으로서 기존 스톡의 리모델링 및 리폼에 의한 품질향상, 노후화된 주호의 고령자를 배려한 재생수법 등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정책을 2010년부터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타마무스비 테라스」프로젝트와 같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입을 통해 일본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단지의 재생 모델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그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는 향후 논의가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지역 어르신을 위한 주거 리모델링 계획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원고는 2015년 송준환 조교수 원고의뢰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

[참고문헌]

1. 株式社リビタ, 株式社ブルースタジオ, 株式社プラスニューオフィス, 有限社オンサイト計設計事務所, たまむすびテラス : りえんと多摩平, AURA243多摩平の森, ゆいま~る多摩平の森 (しあわせな建築 第23回 BELCA賞ベストリフォーム部門受賞建築物紹介), BELCA news 26(150), pp.78-83, 2015.
2.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UR : http://www.ur-net.go.jp/rebuild/rn2/
3. 유이마루 타마다이라의 숲(ゆいまーる多摩平の森)관련 : http://c-net.jp/tama http://www.jutaku-sumai.jp/lifestyle/genko/11/11_01.html
4. 이세규(2013) 에이징 인 플레이스와 도시재생, 좋은땅

사회적 환경

지역 어르신, 마을의 주인이 되다 '영주시 구성마을 할매묵공장'

영주시, 역전의 역전을 꿈꾸다

영주는 철도역세권 중심으로 발달한 소비도시에서 1973년 영주역 이전과 함께 급속한 노령화 진행과 인구감소의 해결의 실마리를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풀어내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움직임의 시작은 2007년 영주시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수행한 '공공건축을 통한 영주시 도심재생방안 연구'에서부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기점으로 영주시는 지역의 공공건축과 지역의 자산에 대한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구도심 재생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오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4년 도시재생선도사업에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지역의 인적자원과 스토리가 담긴 사업들이 추진되기 시작되었다. 이 중 구성마을은 74,259㎡로 1961년 영주 서천의 대홍수 범람 이후 수해주택이 들어선 자리에 철도근로자들이 살아가기 시작하였으며 영주역의 이전과 함께 공동화현상이 발생한 마을 중 하나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구성마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 마을의 재생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오랜세월을 구성마을에서 함께해온 기존의 조직을 중심으로 마을의 문제를 하나둘씩 해결해나가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 반영선 [출처 : 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www.yjrc.kr]

영주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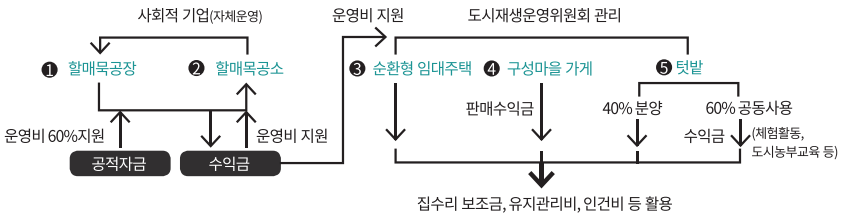
경북 영주시는 영주시는 경상북도 최북단에 위치하여 봉화군, 충청북도 단양군, 안동시와 예천군, 강원도 영월군 등 5개 지역과 접경을 이루고 있고 중앙선, 영동선, 경북선 3개의 철도가 만나는 소 · 태백권 철도의 중심도시이다. 영주시는 2014년도부터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선도지역인 영주동은 영주시의 원도심으로 1973년 영주역이 이전하기 전까지 영주시의 중심장소 인구는 총 10,424명(4,748세대)이고, 면적은 총 1.5㎢(450,000평) 으로 이루어져있다. 6개의 밀집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상권이 저층저밀 주거지와 혼재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철탄산 아래 저층 주거지가 분포되어 있으며 서측으로 서천과 북측의 철탄산을 따라 녹지축이 에워싸고 있다. 북으로는 주거지 중심의 역사문화가로와 남으로는 삼각지공원을 연계하고 파급하는 근린상권 중심의 연계권역으로 이루어져있다.

구성마을 내 지역 어르신의 참여가 만들어 낸 마을재생의 불씨

지역어르신들은 대부분 그 지역 내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애착과 유대감의 경우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미리 인식하고 이들을 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사업초기 계획수립을 위해 구성마을의 코디네이터는 지역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어르신들이 주민을 넘어선 경제활동이 가능한 하나의 주체로 인식시켜드리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지역어르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관심분야를 찾아내는 과정이 수반되었다. 그 과정에서 구성마을의 할머니들은 '묵'이라는 공동 관심사를 찾아내었으며 그렇게 구성마을의 할매묵공장 사업은 시작되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들의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묵을 만들드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할매묵공장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 및 공간 조성 과정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지가 변경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기존의 다른 세부사업(두루두루생활마당, 메밀꽃길)과 통합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전에 의해 100평가량의 잔여지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를 텃밭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추가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되게 되었다.

할매 묵공장의 시작과 다양한 사업의 관계망 형성

앞서 말했듯이 처음에는 할매묵공장 역시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시작하였지만 공간조성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간의 연결고리가 생기고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는데에 시너지로서 작동하기도 하였다. 구성마을 내에 도시재생사업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할매묵공장, 할배목공소, 순환형 임대주택, 구성마을 가게, 텃밭운영이 그것이다. 이 중 텃밭운영은 할매묵공장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잔여지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추가적으로 추진된 사업 중 하나이다. 묵공장과 연계하여 메밀텃밭을 조성하여 발생하는 생산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적 구조를 유도하였다. 이들 사업은 크게 사회적 기업으로 자체운영 방안 (할매 묵공장, 할배 목공소)과 도시재생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순환형 임대주택, 구성마을 가게, 텃밭) 통합운영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공적자금 60%지원 + 수익금으로 운영관리되며, 사회적기업(할매 묵공장, 할배 목공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도시재생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사업의 운영지원비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가 원활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내 일부 인원이 도시재생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구성마을 세부사업 관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어려운 사업추진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

주민조직의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언제나 사업에 참여하는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대부분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조직들 간의 와해와 이로 인해 새로운 주민참여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민을 기존의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보다 선례를 발굴하여 새로운 주민조직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을 발굴 할 수 있는 발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주거지역의 경우 다양한 업과 배경을 가진주민들이 모여있는 곳인 만큼 기존의 자체조직을 기반으로 조직간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성마을 할매묵공장의 사례와 같이 지역 어르신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 노동력의 한계와 사업 추진 시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어져야 하는 정산 ,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을 위한 젊은층의 인력 참여 여부는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할매묵공장은 도시재생선도사업의 마중물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마중물로 시작된 이 사업이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지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해와 협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이들이 열심히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앞으로 우리에게 남여진 숙제이다.

할배목공소 ⓒ 반영선

Check point

이런 점은 참고하세요

지역 어르신을 마을재생을 위한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마을 내 기존조직에 대한 파악과 이들의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다. 계획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이들의 관심사와 이들의 능력 등을 파악하여 이러한 사항을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장소중심적 접근을 수반한 사업의 실행을 고려**해봐야 한다. 지역 어르신의 경우 사업추진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등 경제적인 부분보다 이들의 공동체를 견고히 하고 모임을 통한 삶의 질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임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랑방 형식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가능한 공간 매입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염두한 사업연계와 이를 통한 네트워크 확산을 유도**한다. 지역 어르신이 실행주체로서 참여한 사업을 선례로 마을 내 다른 지역 어르신의 동기유발이 가능해지며 이들의 경험전수와 사업연계로 인해 마을 내 조직간의 네트워크가 확산되고 이는 자생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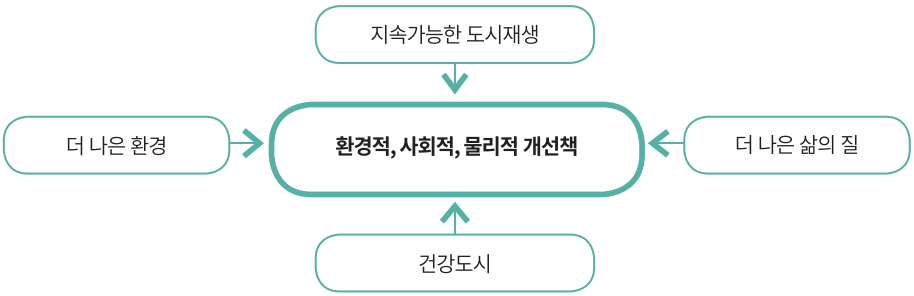
1. 반영선 구성마을 부코디네이터 인터뷰 내용 참고(2016.03)
2. 건축과 도시공간(2016)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의 실행과 발전 , vol 23(3)

공공서비스

건강도시와 지역 어르신 복지서비스의 연계 '양평군 유헬스(U-Health) 존'

건강한 도시를 위한 마을재생

우리사회에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도시(healthy cities), 노인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 등의 개념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Hancock(1996)은 건강도시와 도시재생이 환경적, 사회적, 물리적 개선을 통해 더 나은 환경(better environment)과 더 나은 삶의 질(better quality of life)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어 이 둘 간의 연계가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지역 어르신이 많은 중소도시의 경우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건강취약 계층을 배려한 주거 및 근린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과 건강도시가 추구하는 공통의 목표

[Hancock(1996), figure 2.]

'유헬스 (U-Health)존'을 이용한 지역주민 건강관리

양평군은 군민의 건강관리와 증진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쉽고 빠르게 자가건강 체크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유헬스존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유헬스존에서는 건강측정, 생활습관 개선(상담, 운동, 영양) 프로그램 서비스, 유헬스 기기(혈압기, 체성분분석계 등)를 활용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헬스존은 시장, 공원, 체육시설, 보건소 등 지역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활용성을 높였다. 양평군민 누구나 유헬스존에 상주하고 있는 건강매니저와 상담후 가입할 수 있으며, 유헬스로드 구간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카드를 터치하여, 체지바율, 기초대사량, 근육량 등의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및 PC로도 데이터를 전송받아 건강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집계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운동 및 영양의 맞춤처방을 받을 수도 있으며, 영양, 운동, 절주 관리 등 개인 맞춤형의 건강정보 및 건강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높다.

[출처 : 양평군 힐링건강지원센터, http://healthtour.co.kr]

양평군은?

경기 양평군은 경기도 북동부 권역에 자리 잡고 있고, 인구 10만 9천명, 세대수 4만 8,220세대 수준으로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다. 총 면적의 73%가 산림지역이며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근거리인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 주민들의 자연 휴식지, 전원주택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양평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2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평균(11.3%) 및 경기도 평균(8.9%)을 월등히 상회하고 있다. 양평군은 웰빙과 삶의 질 제고 등의 대외적인 여건 및 노인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내적인 요소 등을 감안하여 지역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건강장수 문화마을 실현'을 두고 있으며, 2008년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lliance for Healthy Cities)에, 그 이듬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orea Healthy Cities Partnership)에 가입하여 건강도시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현재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건강시설 통합 프로그램 '싱싱건강' 운영

양평군은 2015년 7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힐링건강지원센터 보건복지프라자를 조성하여 '싱싱건강'이라는 건강시설 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간 산발적으로 분포해 있던 건강증진 및 보건 시설을 통합하여 연계함으로써 군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싱싱건강프로그램은 보건복지프라자 내 체력측정 서비스, 근력 및 유산소운동 등 순환운동 프로그램, 수중운동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헬스존 확대 및 주변의 걷기 및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헬스투어코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강시설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 군의 다양한 부서가 협업하고 있다. 보건소의 경우 순환운동 제공 및 사전사후 건강 측정, 관광진흥과는 헬스투어 코디네이터 지원, 평생학습과는 수영장 프로그램 제공, 생활체육과는 운동강사 지원, 산음자연휴양림은 프로그램 및 산림치유지도사 지원 등 다양한 부서와 단체들이 협업하여 싱싱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며 이는 군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출처 : 양평군 힐링건강지원센터, http://healthtour.co.kr]

Check point

이런 점은 참고하세요

양평군은 노인인구가 높은 소도시 중 하나로 이들을 위한 다양한 도시정책, 보건 및 복지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지역 어르신의 경우 건강에 대한 관심과 니즈가 그 어느 연령층 보다 높으며 사회환경적 여건 역시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사회적 현황 속에 양평군 힐링건강지원센터 보건복지프라자가 가지는 의미는,

첫째, 일정 지역내의 존을 계획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 하였다는 점이다.

이 사례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만을 주 타깃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며 모든 군민을 위한 사업이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 어르신이 많은 중소도시의 경우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다양한 부서와 기관들의 협업을 통한 통합프로그램 운영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양평군의 관광진흥과, 생활체육과, 평생학습과가 협업하고 있으며 산음자연휴양림과 보건소 등 다양한 기관에 대한 협업으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이루어짐으로서 지역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현장에서 운영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 본 원고는 김은정 교수(계명대학교)의 원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문헌]

1.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2015),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싱싱건강' 운영, 제9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 컨퍼런스 자료집.
2. 양평군청 보도자료 (2016.07.06.)
3. 양평군보건소 홈페이지(http://www.yphealth.net/)
4.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analysis.kostat.go.kr/publicsmodel/)
5. Hancock, T. (1996), Planning and Creating Healthy and sustainable cities : The challenge for the 21st century In C, Price and A. Tsouros p56-79, coppenhagen : WHO Health cities project office.

물리적 환경 공공 서비스

고령자 생활지원을 통해 가치있는 사회만들기를 실현한 '나카노부상점가'

지역 어르신을 배려한 서비스 시작

도쿄의 중심 시나가와구 남서부에 위치한 나카노부(中延) 상점가 부근은 도심지하철, 전철 노선이 지나가고 상업빌딩, 맨션등 고층건물과 그 주변에는 상점가들이 즐비해 있으며 , 이전 관동대지진 후 지어진 도쥰카이(同潤會) 주거단지를 포함해 오래된 주택지를 형성하고 있다. 시나가와구 나카노부상점가는 약 130개 점포가 거대한 아케이드 아래 구성되어 있으며, 나카노부상점가의 반경 700m내에 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1만명 가깝게 살고 있다. 1만명의 고령자 중 30%는 와상이나 치매환자로 헬퍼의 도움을 통해 간호가 필수적인 계층이며, 그중 약 40%는 '일상생활 난민'으로 일상에서 절신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다. 나카노부 상점가는 상점을 이용하는 많은 고령자와 지역의 고령자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령자 자신의 거주지에서 풍요롭고 편리한 실버라이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대응방안이 필요해졌다.

[출처 : http://itiro.cocolog-nifty.com/metro/2007/11/post_a481.html]

[출처 : https://allabout.co.jp/gm/gc/31364/]

자원봉사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상가재생에 미친 영향

나카노부상점가는 고령자 대응을 위해 고민하던 중 상점가 부이사장 츠루타씨는 건강할 때 자원봉사를 통해 나보다 더 곤란에 처한 인근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개념 아래 기존 자원봉사 단체와 연계하여 서비스업을 제안하였다. 상점가 부이사장은 기존 자원봉사 단체인 NPO법인 베리어 프리(무장애) 협회와 연계를 진행하고, 상점가의 지역통화를 활용한 유상 자원봉사서비스 「마치(街)노 컨시어지(concierge)」를 나카노부 상점가 내 빈건물을 활용해 도입하였다. 마치노 컨시어지는 손쉬운 가사활동, 정원가꾸기, 물품구매대행 등 상점가 인근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지원

등록제를 통해 지역화폐를 구입하여 이용가능한 구조로 상가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본 사례의 사업아이템과 운영방식은 일본 중소기업청에게 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인정 받는 등 고령사회에서 처한 지역사회 문제를 자원 봉사형태로 해결하고 가치있는 사회만들기에 기여한 상가재생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역통화 사용과 자원봉사서비스 시행으로 상점가 활성화

「마치노 컨시어지」는 고령자의 일상적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써 세탁, 청소, 설거지 등 가사일과 정원청소, 물건구매 대행, 전구교체, 가구이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혹, 심부름 센터와 같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그 컨셉이나 운영형태가 다르다. 「마치노 컨시어지」는 노후가 되어도 편리하고 건강하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계속 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원하는 고령자들을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년 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에 있어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고령자를 도와주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유상으로 지원 받는 방식이다.

유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 서비스비용의 70~80%의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부담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일종의 봉사정신으로 시작하지만 약간의 보수를 통해 체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상 자원봉사서비스'는 "작은 자원봉사를 통해 나보다 곤란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희망자를 '컨시어지'로 등록받아 회원시스템 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따라 쿠폰으로 지불한다. 이렇게 지불된 쿠폰의 절반은 지역통화(공통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상점가 소비에 사용할수 있도록 하며, 나머지 절반은 사무국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지역통화 상품권이 다시 상점가에 사용되므로 상점가 매출에도 공헌이 가능한 「지역순환형 시스템」이라는 장점이 있다.이용자와 등록자는 모두 상점가 반경 700m 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며, 낯익은 사람이 오거나 가기도하여 안심하고 이용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원작업 관련	수목전정, 가지치기, 잡초제거, 살충, 화단에 물주기
주택보수관련	창호지, 다다미 등 교체, 방충망 제작/교체, 페인트칠, 바닥, 천장 교체, 지붕보수/교체, 천막 제거 및 청소, 방 보수(리폼), 욕실, 부엌, 화장실 고장 수리
청소관련	배관공사 및 청소, 에어컨 청소, 환풍기 ,부엌, 욕실 ,화장실 방 청소
물품처리 및 이동	대규모의 버리는 물건 이동, 가구이동(힘쓰는 일), 폐품정리 및 처분
기 타	물품구매 대행, 전구교환, 컴퓨터 지도(개인지도), 가옥(주택)해체

「마치노 컨시어지」서비스 내용

Check point

이런 점은 참고하세요

고령사회가 지역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속에서「마치노 컨시어지」가 가지는 의미는,

첫째, 상점가라는 매출을 먼저 생각하고 소비가 일어나야만 하는 현장에서 고령사회라는 사회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수의 지역 어르신을 배려하며 지역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고령사회의 사회 문제점과 다수의 이용자가 고령자임을 인식하고,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계하기보다 고령자의 생활면에서 지원을 통해 이용자의 풍요롭고 가치있는 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그 상선에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건강한 예비 지역 어르신이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지역 어르신을 돕는 자원봉사라는 가치있는 개념을 도입하여, 건강한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더 큰의미가 존재한다.또한 상점가 재생에 걸 맞게「마치노 컨시어지」에서 취한 이윤이 지역화폐를 통해 일부가 다시 상점가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한 운영구조는 상점가의 경제적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한다. 먼저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주민이 관심사를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하였으며 그것을 연계하는 도구로 지역 어르신 지원 서비스업을 도입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킴으로서 쇠퇴하던 상가의 활성화와 가치있고 활기찬 사회만들기를 실현할 수 있었던 사례이다.

빈점포를 활용한 나카노부상점가 내「마치노 컨시어지」점포
[출처 : https://allabout.co.jp/gm/gc/31364/]

나카노부상점가 전경
[출처 : https://allabout.co.jp/gm/gc/31364/]

* 본 원고는 김윤수 연구교수(연세대학교) 원고 의뢰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

[참고문헌]

1. 중심시가지활성화 협의회지원센터 홈페이지(http://machi.smrj.go.jp)사례_高齢者にやさしい商店街を実現する「街のコンシェルジェ」(고령자에게 친절한 상점가를 실현한「마찌노 컨시어지)
2.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chusho.meti.go.jp/shogyo/shogyo/shoutengai77sen/nigiwai/3kantou/1_kantou_10.html)

정책 소개

지역 어르신을 위한 정책 '영국 Active at 60 community agent program'

지역 사회 활동에 지역 어르신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시도

Active at 60 community agent program은 은퇴가 다가오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이 커뮤니티로 결속되어 사회와 서로 교류하고 연계되어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돕고자 추진된 정책으로 DWP 기금(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DWP) fund) £1,000,000를 국가 기관 Community Development Foundation (CDF)에서 지급한 정책 프로그램이다. 자금은 최소 250 파운드에서3000파운드까지 지원하였으며 활동 촉진을 위한 마중물의 형식으로 사용되어 지역 어르신들이 지역 내 다양한 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활동 유지를 위해 모닝커피, 당일 여행, 퀴즈 등의 사회활동 개발과 산책, 댄스 등 신체적 활동이 가능해졌으며 지역 어르신 사이의 자발적인 활동 조직이 활성화되고 주변 지역 어르신까지 확산되어 참여함으로서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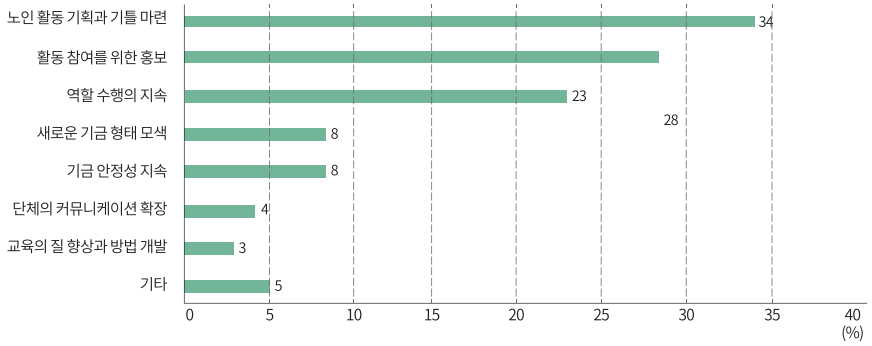
지원기간	2011년 3월~2011년 12월 31일
대상	60대 어르신(은퇴 후의 60대 이상의 어르신) 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는커뮤니티 단체에 제공
지원방법	영국 전역에서 총 30개의 지역을 선정,최소 250파운드~3000파운드 지원, 쇠퇴지표 및 연금수급자 수 등 관련 요소들이 부합해야 함
지원내용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고독)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방안으로 고안된 프로그램, 노인의 정신적 신체적 활동 유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 개발 및 신체적 활동 지원
특기사항	지원을 받는 업체는 'Active at 60 Community Agent'와 사람들이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60세 이상의 봉사자 적어도 한 명을 채용해야 함

Active at 60 community agent program 개요

정책 프로그램이 지역 어르신에게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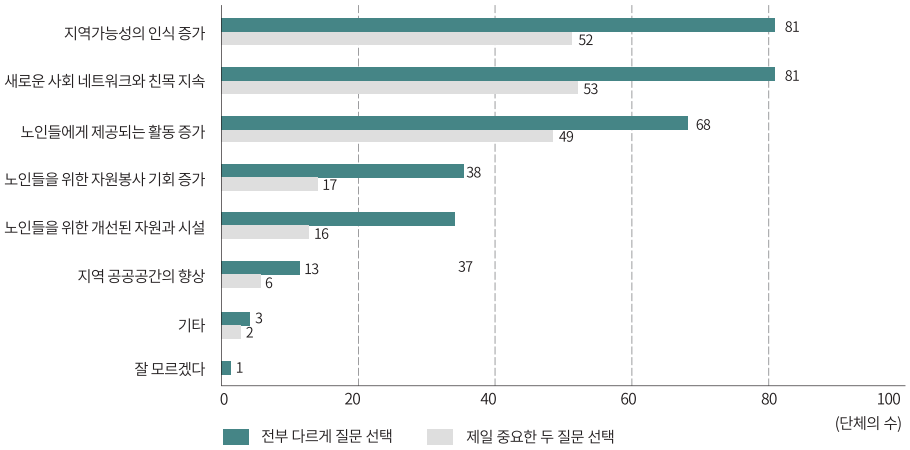
Active at 60 community agent program은 일시적 기간동안 추진된 정책 프로그램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의 독려와 활성화를 위해 시도되었다. 이 프로그램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지역 내 공동체를 형성시켜 지역 어르신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화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이러한 조직 생활은 노인들이 삶에 대한 목적의식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정신건강 향상의 효과를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도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노인들이 참여했을 때 그들의 감정 완화에 도움을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을 통해 습득한 기술 및 지식의 경우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요소로서 작용되기도 하며 활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과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노인들의 지역사회 역할수행을 위한 커뮤니티 단체 계획

대상 : 153개 커뮤니티 Agent (연구조사 팀에 의한 응답 중 다수의 응답이 많아 총 합계는 100퍼센트 이상임)
[출처 : DWP(2012) Outcomes of the Active 60 community Agent programme, 재작성]



지역내 공동체형성의 이점

대상 : 159개 국지비원 단체(응답자들은 하나의 다른 질문 이상 체크가 가능하며,
그 중 제일 중요한 두개의 질문을 선택, 세명의 응답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출처 : DWP(2012) Outcomes of the Active 60 community Agent programme, 재작성]

지역사회에서 지역 어르신의 역할 범위 확장

국비지원을 받는 커뮤니티단체의 경우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역할을 수행하는데에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였다. 지역 차원의 기금 제공은 자원봉사자 수를 증가시켰으며 이들의 노인 활동에 대한 기획, 활동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장려 등에 초점을 이루었다. 이들에게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역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 커뮤니티 단체를 조직할 때 지역 어르신을 1인이상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으나 그룹의 대다수가 노년층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주체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재정 지원 이후 참여를 지속하고 있는 단체의 수가 81%라는 것에서 증명할 수 있다.

Check point

변화하고 있는 지역 어르신을 위한 공간 '일본 이바쇼 정책 '

일본에서는 늘어가는 고령자와 이들의 건강 및 복지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역 어르신들에게 예방차원의건강 유지와 독거사에 방지를 위해 이들이 지역 내에 이들의 교류와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기위한 '이바쇼'정책이 추진되었다. 폐교나 빈집, 빈상점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커뮤니티 카페를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성된 카페는 지역의 어르신 뿐 아니라 아이, 주부 등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으로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집과 같은 안락함과 동시에 사람들과의 소통이 가능한 제 3의 공간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우울감을 예방할 수 있다는 데에서 예방적 건강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대상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방법	폐교, 빈상점, 빈집 등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지원 내용	단체당 200만엔 이내의 설비비(설비, 비품구입), 시설개수비(1/2이내 보조)기본사업비와 관리비는 대상제외	특기 사항	지역주민들의 교류가 가능한 장소로 기존시설의 리모델링과 초기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며운영은 추진단체가 직접 수행

[출처 : 한국여성건축가협회(2016), 고령화시대 지역을 살리는 커뮤니티 세미나 자료집]

[참고문헌]

1. Areenay Hatamian, Daniel Pearmain and Sarah Golden(2012) Outcomes of the Active at 60 Community Agent Programm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 Alice Mowlam, Sally Bridges, Valdeep Gill,Andy MacGregor, Jude Ranasinghe and Elizabeth Tideswell(2012) Active at 60_Local evaluation research_Final report,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3. 한국여성건축가협회(2016), 고령화시대 지역을 살리는 커뮤니티 세미나 자료집

지역 어르신과 함 께 하 는 마 을 재 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는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로 지정받아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관리, 장소활성화를 위한 마을단위 계획 수립 지원,
마을재생 모델 정립과전문인력 육성 및 네트워크를 지원 하는 등 장소중심의 마을 및
지역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도시 및 마을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그 결을 함께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실행주체인 지역 어르신, 주부, 청소년 등을 발굴하고 지역의 재생을 위해 이들이 주체가 되어 시도하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여 노하우를 축적 및 확산하고자 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마을재생을 기획하면서 그간의 수혜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지역 어르신들을 마을의 일원으로 참여시키고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하며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례 및 방안들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시리즈물이 나오기 까지 자문과 도움을 주신 박경난박사님, 반영선 소장님, 황남희 박사님, 박주영 박사님, 김윤수 교수님, 김은정 교수님, 송준환 조교수님 외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추후 발간되는 함께하는 마을재생 시리즈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실행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공하여 이들이 자생적으로 마을재생에 참여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6. 12
도시공간재창조센터

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마을재생

인쇄일	2016.12.26.
발행일	2016.12.31.
지은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
펴낸이	김대익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홈페이지	www.auri.re.kr
메일	information@auri.re.kr
책임편집	박성남
편집	김민경
디자인	성우애드컴
인쇄	성우애드컴

ⓒ2016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

ISBN 979-11-5659-104-7

이 소책자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